

5·18 실무 조사관 나이 제한 풀고 본격 채용

60세 상한 연령제한 삭제

3~7급 별정직 34명 채용공고

4개 부서 구성 3월부터 활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의 실무를 책임질 별정직 조사관에 대한 ‘60세 상한 연령제한’이 풀리면서 경험 많고 수준 높은 전문 연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18을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전문 연구자 대부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선 탓에 조사관 공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보도(광주일보 1월 10일자 6면) 이후 오월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5·18진상조사위와 인사혁신처 등은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3급~7급상당) 채용공고’를 올리고 본

격적인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안종철 5·18진상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일단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각 정부부처 협의를 거친 뒤, 동의를 얻어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60세 제한 규정을 없앤 상태로 조사관의 채용 공고를 냈다”면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있는 상한연령 60세 규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령 제한과 함께 제기된 ‘국가공무원법’ 검직 허용에 대해서, 두 곳에서 급여를 받게되는 문제 등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5·18 재단과 5월 단체, 5·18 연구자들은 “연령제한 삭제 결정에 내린 5·18진상조사위와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일부 연구자들의 불가피한 검직 등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보완 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40년 전의 일을 기억해 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전문 연구자들이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나이 제한을 없앤 결정은 환영한다. 하지만 조사 기간도 짧을 뿐더러 조사관의 숫자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 부족한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조사관 수가 너무 적다. 전문위원 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충분히 활용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전문위원에는 5·18 전문가는 물론 군 전문가, 경찰수사관 등도 포함해야 하며, 이들에게 자문을 받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록물 열람·조사기관 방문 등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별정직 공무원인 조사관의 구성은 대외협력 담당부서와 3개의 조사과 등 크게 4개 부서에 34명의 조사관으로 구

성된다.

먼저 언론과 국민에게 위원회 소식을 전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외자료를 수집하는 일 등을 맡는 대외협력부서는 3명(4급·5급·7급상당 각 1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3개의 조사과는 5·18 당시 발표 명령과 역사 왜곡,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행거사격 등과 관련한 진상규명 조사 등 실질적 조사 업무를 분담해 담당하게 된다.

채용절차는 ▲원서접수(1월 22일~2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월 5일) ▲면접전형(2월 12일~13일) ▲최종합격자 발표(2월 25일)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관의 실제 활동은 빠르면 3월 초부터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 위원장은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총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맞 올린 5·18진상규명 조사위...민간인 학살·집단발포 경위 조사 1과서 맡는다

3급 과장 1명 등 12명 배치

조사 2과 진실왜곡 등 다뤄

북한군배후설 조사3과 맡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질 조사1~3과의 조사관 31명의 업무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많은 12명으로 구성된 조사1과

는 3급 과장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등이 배치돼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현장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시민에 대한 최초 발표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행거사격 경위,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1과는 5·18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관련 청문회 관련 업무와 결과보고서 작성 등도 총괄한다.

4급 조사과장 1명과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조사2과에선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집단학

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3과는 4급 과장 1명과 5급상당 3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3명 등 총 10명의 조사관으로 이뤄지며,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사작전 ▲진상조사위가 이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 내 묘지 이전

1기당 340만원 지원

무등산국립공원은 16일 “‘무덤산’이라는 오명을 받고있는 무등산이 경관 복원을 위한 묘지이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무등산국립공원은 공원 내 6000여 기에 달하는 묘지로 인해 경관 저해·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성묘객 불법 무질서행위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무등산국립공원은 공원 내 유연고 묘지를 공원 밖으로 이장하면 묘지 1기당 3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장을 원하는 유족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무등산국립공원 관할 사무소에 신청, 사무소 측의 현장조사를 거쳐 이장하게 된다. 묘지 이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구 버스정류장 ‘온기쉼터’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번 출구 인근에 ‘온기 쉼터’가 설치돼 있다. 광주 동구청은 최근 기존의 몽골텐트와 캐노피 대신 한옥디자인을 이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승강장과 교통신호 등에 설치, 시민들이 찬바람을 피해갈 수 있도록 설치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달뜨기 --:--
해질녘 17:45 달질 12:03

산불조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 | | | | | |
|----|----|------|-----|------|------|
| 광주 | 맑음 | -1/7 | 보성 | 맑음 | -3/6 |
| 목포 | 맑음 | -1/5 | 순천 | 맑음 | 0/9 |
| 여수 | 맑음 | 1/8 | 영광 | 맑음 | -3/5 |
| 나주 | 맑음 | -3/7 | 진도 | 맑음 | 1/6 |
| 완도 | 맑음 | 1/7 | 전주 | 맑음 | -3/6 |
| 구례 | 맑음 | -3/8 | 군산 | 맑음 | -2/5 |
| 강진 | 맑음 | -1/7 | 남원 | 맑음 | -3/7 |
| 해남 | 맑음 | -2/6 | 흑산도 | 구름맑음 | 3/6 |
| 장성 | 맑음 | -2/6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 서해남부 | 안바다 | 북~북동 0.5 | 북서~북 | 0.5~1.0 | |
| 서해남부 | 면바다(북)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5 |
| | 면바다(남)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5 |
| 남해서부 | 안바다 | 북서~북 | 0.5~1.0 | 북서~북 | 0.5~1.0 |
| | 면바다(대) | 북서~북 | 1.0~2.0 | 북서~북 | 1.0~2.0 |
| 면바다(동)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5 | |

◇생활지수

| | |
|------|----|
| 감기 | 높음 |
| 뇌졸중 | 높음 |
| 미세먼지 | 보통 |

◇물때

| | 간조 | 만조 |
|----|-------|-------|
| | 목포 | 12:04 |
| 여수 | --:-- | 19:28 |
| | 07:43 | 01:44 |
| | 20:20 | 14:07 |

◇주간 날씨

| 18(토) | 19(일) | 20(월) | 21(화) | 22(수) | 23(목) | 24(금) |
|-------|-------|-------|-------|-------|-------|-------|
| ☀ | ☁ | ☁ | ☁ | ☁ | ☁ | ☁ |
| -3/8 | 0/7 | 1/8 | -1/9 | 2/8 | 3/10 | 2/8 |

지난해 최다 태풍·최소 12월 적설량 기록

지난해 광주와 전남은 가장 많은 태풍의 영향을 받았고 역대 가장 적은 12월 적설량을 기록했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29개의 태풍 중 7개가 10월 초까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1904년 근대 기상업무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태풍이 가장 늦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해는 7

개 태풍의 영향을 받은 1950~1959년과 공동 1위에 올랐다.

눈도 적게 내려 12월 한 달 적설량이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목포·여수 등 유인관측소 3곳에서 12월 적설량은 0cm를 기록했다. 연평균기온은 14.4도로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높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31일까지 자동차세·환경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1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각 자치구로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 후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개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신청할 경우 연 부과액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구 환경과로 전화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